

SUNBO FAMILY

vol.67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2009. 08. 0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우리회사 전략 워크샵 시행

회사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모색

워크샵 첫 날은 '연간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 결집력 강화'와 '기술혁신원가에 대한 제고'로 최저 원가 달성을 위한 체질강화를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신수종 사업 수주를 위한 혁신 마인드 업'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타 부문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며 전사 전략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적 활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장명우 상임고문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조직에서 '지휘'가 좀 더 강해져야 하고,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고유 KPI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반기 경영성과 실적발표와 하반기 성과달성 결의를 위한 전략 워크샵이 지난달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성공리에 진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샵은 대표이사과 상임고문을 비롯해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43명이 참석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 20% 원가절감, 신성장 동력 아이템과 개척 등 3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경제위기에 대해 개개인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09년 하반기 성과달성 전략



현대중공업 일행, 우리 회사 방문!

지난 29일, 현대중공업 하우진 전무와 김재훈 상무 일행이 우리 회사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대중공업의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협력 업체와의 상호 우호 증진과 애로 사항 수집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하우진 전무는 우리 회사의 혁신 사례 및 실적 평가 시스템, 트라이본을 이용한 3차원 설계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 회사는 현대중공업의 이번 방문으로 두 회사의 우호가 앞으로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Kibo A+ Members로 선정돼

우리 회사 기술력과 시장성 높게 평가받아...

우리 회사 정문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현판이 추가됐다. 기술보증기금의 엄격한 실사를 통해 시장성과 기술력 등을 높이 평가 받음으로써 우리 회사가 지난 6월 5일 최우수등급인 A+ members 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 간 우리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의 A+ members 기업 인증을 얻음으로써 각종 정책 자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대외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재욱 부장은 "우리 회사의 시장성과 기술 설계력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의 신용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Kibo A+ Members 선정서

발행처 | 김포보증(주)
대표자 | 최은식
유효기간 | 2009년 4월 30일 ~ 2011년 4월 30일

귀사는 기술력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되어 우리기업의 Kibo A+ Members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009년 06월 09일

KIBO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TECHNOLOGY KIBO Technology Fund

회사 소식

교육

Jump Up 선보, Mind Up 선보가족!

직원의식 개선을 위한 JUMP-UP 교육진행



직원역량개발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Jump up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설계 및 도입과 조직원 간의 상호 협력 시너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이 달 28일까지 총 7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Jump up 교육은 조선 산업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개개인의 마인드업과 더불어 한마음 한 뜻으로 불황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담당자 이재민 대리는 "우리 회사의 교육 시스템은

비교적 체계적이지만 아직 마인드 교육이 부족한 상태"라며 "Jump up교육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직군별로 가치별로 과정을 나누어 진행된다. 따라서 관리직군에게는 '사업력' '추진력' '실행력'을, 생산직군에는 '활력' '생산력'을 위한 과정을 교육하며 2차까지 진행된 현재, 67명의 일반관리직 사원이 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민병기 대리는 "마인드 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었고, 교육과정을 통해 조직 사람들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의식개혁을 위한 Jump up교육이 끝나면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원가관리교육이 실시 되는 등 우리회사는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회사 소식

감사패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창립 52주년기념 감사패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일 한국생산성본부 창립 52주년을 맞아 감사의 패를 전달 받았다. 이번 상은 우리 회사가 평소 KPC의 이념인 인간존중의 생산성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 실천 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수상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7년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경영혁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현재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지역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될 정도로 최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번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



사내 예절

전화응대 표준 메뉴얼

전화예절은 회사의 얼굴이며, 친절을 가늠하는 척도다.

- 전화를 연결 받는 경우
 - 반갑습니다. 00부(팀) 000입니다.
- 담당자가 통화중인 경우
 -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통화가 길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 받을 사람이 부재중일 경우
 - 다른 부서에 가셨는데 30분 후에 돌아오십니다.
- 타부서로 돌려줄 경우
 - 담당부서인 00부(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 만약 공기면 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메모를 받을 경우
 - 네, 성함이 0자0자0자 되신다고요?
 - 네,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000라고 합니다.
- 상대방의 이름 등 물을 경우
 - 실례합니다만, 성함(연락처)을 알려주시겠습니까?
 - 네,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000라고 합니다.
- 업무처리로 기다리게 하는 경우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데 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가 설명을 잘못 알아 듣는 경우
 - 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 듣는 경우
 -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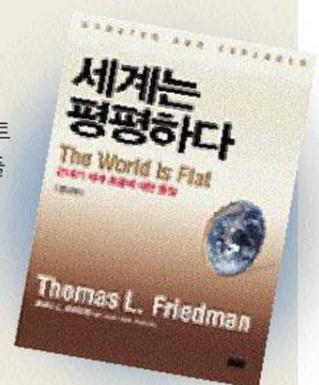
최홍렬 상무의

이 한권의 책 세계는 평평하다

폴리처상 수상작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저자의 기념비적인 신작!
당신이 10년 후에도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학자들이 지금부터 20년 후 21세기의 세계사를 쓸 때, "Y2K에서 2004년 3월까지"라는 장에 도달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발전이었다고 말할까?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을 공격한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아니면 인도,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을 서비스와 제조업에서 전 세계적 공급사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의 중산층에 부의 폭발을 안겨다주고 세계화의 성공에 큰 몫을 차지하게 한 기술의 융합일까? 그리고 현재 위치를 지키기 위해 더 빨리 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구의 '평평화' 현상에 따라, 세계가 너무 작아지고 빨라져 인류와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진 현상인가?

여러 차례 폴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멋진 신세계를 해석해 독자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어리둥절한 세계의 현상들을 이해하게 한다. 복잡한 외교정책과 경제 문제를 해석하는 독보적인 능력으로, 프리드먼은 세계의 평평화가 21세기의 여명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준다. 또 국가, 기업, 지역사회, 개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고 적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세계는 평평하다』는 세계화의 본질을 기술한 최신작으로, 세계화의 성공과 문제점을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살이 조명한 책이다.



추천 여행지

태종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곳, 태종대

여행을 떠나겠다 마음 먹으면 아무래도 가까운 곳보다는 먼 여행지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여름 휴가 내내 수많은 인파에, 차량에 지쳐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지 않는가.

이번 주말엔 아름답지만 가까워 매년 여행지 선택에서 제외되는 태종대로 떠나보자.

태종대는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는 해발고도 200m이하의 구릉지역으로 숲과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진 해식절벽과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다. 신선이 살던 곳이라는 뜻으로 '신선대'라고도 불렀지만, 현재는 태종대라는 호칭이 보편화됐다.

20분에 한 대씩 운행되는 다누비 기차를 타면 한 시간 정도의 산책코스를 가로질러 태종대 전체를 관광할 수 있다. 다누비는 중간에 내렸다다 다시 탈 수도 있으며 일인 1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신선대 바위 망부석을 지나 태종대 전망대까지 올라서면 깎아 세운 듯한 아찔한 절벽들이 넘실대는 파도와 더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파란 바다와 하늘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이 곳은, 맑은 날씨에 올라서면 일본 대마도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또 그곳에는 이 곳 명물인 모자상이 있다.

그 밖에 인공해수 풀장인 '곤포의 집'을 비롯한 위락시설과 바다낚시터 등이 있으며 너비 10m, 길이 4km 가량의 순환관광로가 섬의 명소들을 누비며 지나간다.

발에 맞는 운동화,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하루짜리 짧은 여행도 삶의 여유를 되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말 무 가까이 있어 놓치기 쉬운 명소 '태종대'에서 여름 날의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 태종대 가는 길

▷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1호선 남포동역 하차 후 6번 출구 10번 정류장에서 8, 30, 88번 버스 승차 약 20분 소요

▷ 자가용 이용 시 : 대연터널 → 문현교차로 → 부산대교 → 영도구청 → 태종대교차로 → 태종대



회사 소식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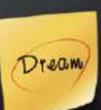
휴가사진 공모전

무더운 날씨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년에 이어 올해에도 회사 후원 사진동호회 주관으로 휴가사진 공모전을 개최 합니다. 휴가 기간동안 즐거운 여행 다녀 오시고 즐거웠던 추억을 한장의 사진으로 남겨 경품도 탈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는 선보가족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개인당 3편의 출품이 가능합니다.

| 공모기간 | 2009년 8월 31일 까지
| 공모대상 | 여름에 관련된 모든 사진

| 대상 1명 |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 우수 2명 | 문화상품권 만원권 5장
| 가작 5명 | 영화관람권 2매

| 후원 | 선보공업주식회사
| 주관 | 선보사진동호회



업체 탐방

기본에 충실하는 젊은 회사 '덕광중공업'

경남 진해시 남양동에 위치한 덕광중공업은 2001년에 설립돼 50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체다. 주로 조선기자재 블록 및 파이프를 제조하며 부산과 고성 등 세 개의 공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확 트인 바다가 회사와 마주해 시원한 느낌이 드는 덕광중공업 본사는 넓은 공간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으며 사무실과 현장이 분리돼 직원들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덕광중공업이 선보와 인연을 맺은 지는 햇수로 3년 가까이 됐다. 파이프스프링이 주거래 품목이며 선보의 모든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

덕광중공업 조규환 차장은 "선보가 워낙 품질관리와 납기에 철저한 편이라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런 엄격한 관리 덕분에 우리 역시 대처능력이 생기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쁨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 전체 사원의 대부분이 2~30대로 구성되어 있는 덕광중공업은 '젊다'는 느낌이 강하다.

젊은 사람들의 빠른 일처리 능력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고, 좋은 분위기 속에 애사심도 강한 편이다. 특히 관리 업무 부문에 직원들이 많고, 직급을 가진 여직원도 있다. 한기영 차장은 "본인이 잘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

는 환경'이라며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다니는 사원도 있다고 전했다.

제대로 된 부품 하나가 큰 배를 만들 수 있듯이 덕광중공업 사원들은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한다. 공장내부에는 '기본에 충실 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크게 걸려있다.

앞으로 파이프스프링 뿐 아니라 다양한 부품 제조를 위한 사업다각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젊은 기업 덕광중공업의 미래는 밝다.



김정준 상무이사는 "원칙과 품질을 철저히 하는 선보는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며 "선보와 덕광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합치면 앞으로 두 회사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자신감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포부를 다지는 덕광중공업. 앞으로도 협력업체로서 선보와 함께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생생 현장의 소리



최현창 과장

작업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관리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값진 말 한마디가 소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 구평공장 최현창 과장이 그런 사람이다. 생산 품질 관리자로 선보에 온 지 3년, 그 누구보다 작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경 쓰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기를 맞추려면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해요.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 뿐이죠.”

관리자로서 품질관리, 일감 조율 등의 일처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최현창 과장은 언제나 현장 근로자들이 일순위라고 말한다. 그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고,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일의 능률도 높이고 서로서로가 돈독해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실행해오고 있다.

현장팀의 고생이 더욱 더 커지는 계절인 여름, 무더위와 싸우는 근로자들을 위해 최현창 과장은 작게나마 시원한 먹을거리를 손수 직원들에게 돌리곤 한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겸손해하던 그는 “이런 날엔 음료수나 수박화채, 미숫가루 같은 간식으로



우리 근로자들 기분 맞추려 노력합니다. 덥고 짜증나다가도 이런 음료 하나에 또 웃는게 사람들 정이 아니겠습니까?”라 전하며 웃는다.

마지막으로 선보에 바라는 점이 있느냐 묻자, 최현창 과장은 공장 내 식당문제에 대해 말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녁식사시간을 5시로 한 시간 앞당겼으면 합니다. 12시에 밥을 먹고 6시까지 기다리니 배가 고파 일의 능률이 안오르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또 한 시간 앞당기면 우리 밥해주는 분들도 일찍 퇴근하고 근로자들도 연속적으로 일함으로 인해 일의 능률이 오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확실한 품질과 빠른 납기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장근로자의 진정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의 선한 눈웃음 속에 진정 관리자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9호



김유미 사원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하기를 위하여 펼쳐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기분 좋은 배려의 여왕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법. 여기 선보유틸렉 구평공장에 밝고 맑은 미소를 가진 배려의 여왕이 있다. 맑은 일은 물론이고, 소소한 전화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김유미 사원. 그녀가 이 달의 칭찬 릴레이 주인공이다.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는 소리에 그녀는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뽑아주셔서 쑥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나요?

구평 공장의 생산관리부에서 사급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쁨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점도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요.

특히 제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확인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전화상에서 상대방이 대표전화로 연결해 제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최대한 불편함 없이 상대방이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해요.

Q 앞으로 어떤 선보인으로 남고 싶나요?

주 업무는 생산관리업무지만,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업무관련 문의를 할 때 마다 사실 기분이 좋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나

게 있다”는 사실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존재감 있는 선보인으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항상 신경써주시는 이사님과, 적극적으로 저를 잘 도와주는 유틸렉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Q 다음 칭찬 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선보유틸렉 구평공장 자재지원팀 박관호 주임을 추천합니다. 주임님은 항상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보다 실천이 먼저인 분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박관호 주임님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본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된 자재들을 항상 수첩에 기재해 두셨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꼼꼼하게 적어놓으신 수첩의 내용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기술영업	유우성(8/30)
유성공업	최진호(8/4) 김규성(8/5) 신동화(8/7)
출하준비반	박희순(8/14)
순해공업	리종국(8/5)
생산관리	임영삼(8/31) 권남현(8/9)
조립	이영근(8/13) 최정호(8/17) 권성현(8/21)
고객지원	삼성섭(8/5)
설계3팀	윤은석(8/13)
자재조달	김동관(8/21)
2공장-신덕	김계원(8/20)
2공장-출하준비반	최봉순(8/2)
2공장-신덕ENG	정지훈(8/13)
2공장-생산관리	김상훈(8/28)

본사 입사기념일

금현산업	이진호(8/5)
출하준비반	하종성(8/2)
유성공업	김진환(8/25) 김규성(8/6)
보은반	안병선(8/8)
순해공업	리종국(8/13)
중앙기전	정역희(8/27)
계장반	이은식(8/16) 김정민(8/7)
조립	최정호(8/25) 김우철(8/25)
2공장-신입공업	장차열(8/1)
경영기획	이동하(8/8)
고객지원	차상민(8/11) 노재태(8/2)
2공장-물류	류승진(8/20)
기술영업	이황우(8/8)
설계1팀	고상현(8/8)
자재조달	최동배(8/5) 서성식(8/8)
품질경영	최경호(8/13)

구평공장 생일

생산관리	김광욱(8/29) 조영희(8/8)
자재운영	이태욱(8/21)
자재조달	이동준(8/17)
품질보증	김건우(8/21)
설계	민병철(8/21)
대한ENG	차승훈(8/7) 공대성(8/25) 장인석(8/25)
보성산업	이창복(8/13) 허보선(8/30) 권오용(8/28) 홍창호(8/20) 이정호(8/18)
서경PLANT	오경준(8/28) 정동일(8/27) 이홍직(8/31) 최양희(8/5) 박창수(8/2) 최봉근(8/28) 조상연(8/17)
하립테크	

영도공장 생일

자재운영	김상철(8/15)
------	-----------

영도공장 입사기념일

와장생산관리	표종원(8/23)
품질보증	김영호(8/24)

틀린그림찾기

5곳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세요.
누가 누가 잘 찾나!

